

# 周作人の 산문세계\*

—小品文의 문체구성을 중심으로—

金美廷\*\*

— <目次> —

|                   |                   |
|-------------------|-------------------|
| I. 들어가는 글         | 3. 平淡·閑適의 배후: 周作人 |
| II. 平淡·閑適을 이루는 요소 | 산문의 苦味에 관하여       |
| 1. 언어와 문장의 운용     | III. 맺는 글         |
| 2. 서술방식           |                   |

## I. 들어가는 글

일찍이 胡適은 중국현대산문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산문방면에서의 가장 주목할만한 발전은 周作人등이 제창한 小品산문이다. 이러한 小品은 平淡한 담화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중략: 인용자)… 이러한 작품의 성공은 白話로는 美文을 쓸 수 없다는 미신을 철저히 타파할 수 있었다”<sup>1)</sup> 라고 평가하였다. 이 글이 1922년에 쓰여졌음을 감안한다면, 위의 평가는 周作人 초기산문의 극히 일부를 평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강조점은 중국 현대산문 형성기 서정적 小品散文의 의의, 즉 《新青年》을 중심으로 隨感·雜感 위주의 산문적 글쓰기 환경에서 홀연 출현한 周作人류의 小品散文이 점차 근대적 산문장르로서 정체성을 확립시켜나가는 과정에 대한 역

\* 이 논문은 2004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胡適: <五十年來中國之文學>, 1922, 《胡適文存, 2卷》 240쪽, 黃山書社

사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렇지만 이 구절은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게 의해 반복 인용되면서 학술적 권위를 획득하였고, ‘平淡’과 ‘閑適’의 ‘美文’은 周作人 산문의 기본적인 문체특징으로 이해되었다.

胡適의 평가는 문학사적 의미에서 현대산문 성립의 큰 맥락을 짚어낸 것이지만, 그가 사용한 용어는 분명히 풍격을 포함하는 문체에 관한 것이었고, 이후 문체연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이에 胡適의 뒤를 이어 朱光潛이 周作人の 《雨天的書》를 “清淡한 小品文字”<sup>3)</sup>로 규정했고, 郁達夫가 周作人の 문체에 대해 魯迅의 匕首式 문장과 비교하여 “여윌고 자유로우며(舒徐自在)” 그 풍격은 “깊고 부드러운 가운데 反語가 나타남”<sup>4)</sup>을 지적하고 있다. 周作人 문체와 풍격에 대해 기본적인 평어가 형성되고 있는 셈인데, 평어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그러한 미적 감각이 일어나는 근거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주관적인 인상비평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이후 周作人연구가 공백기를 맞는 일단의 기간,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중국대륙에서 周作人붐이 일고, 짧은 시간 동안 그에 관한 상당양의 연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의 산문문체에 관한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중국과 한국의 문학연구 풍토에 공히 문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불리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작가나 작품에 대한 주제적·사상적 연구가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건너 뛴 채 작가의식이나 사상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고 하고, 주제적·사상적 심오함이나 심각함이 곧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문체에 대한 논의는 흔히 수사적 차원에서의 논의와 동일시되는데, 이때 문체론적 연구는 사상이나 주제·작가의식·시대의식 등과 무관한 지극히

2) 五四新문학운동초기 산문장르가 제도적 차원에서 근대적 문학장르로 자리잡는 과정에 대해서는 홍준형: <五四초기 산문 장르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존재양상>(중어중문학 제35집)에서 자세히 논술되고 있다

3) 朱光潛: <雨天的書> 1926,4 陶明志編 《周作人論》 110 쪽

4) 郁達夫: <中國新文學大系 散文二集 導言> 14 쪽

형식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로 간주된다. 한 마디로 문체란 문학연구에 있어서 부차적인 영역, 즉 수사상의 문제로, 혹은 장식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연구는 암시적이건 명백하건 간에 언어 및 표현의 운용과 미적 기능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작가의 예술적 성취가 언어와 문장 구성, 서술방식 등을 통하여 어떻게 획득되었는가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표현상의 선택으로서 문체의 문제는 결국 글의 내용이나 주제와 깊은 연관을 갖게 되며, 따라서 문체연구도 언어의 표면적인 현상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언어에서부터 작가의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인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전제에서 시작된 周作人 小品산문에 대한 초보적인 문체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平淡’, ‘閑適’과 같은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한 어느 정도 모호한 미적 감각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언어와 문장 구성, 표현방식에서부터 살펴보면서, 표면적인 언어현상 아래서 작용하는 작가의 정신생활이나 세계관, 혹은 작품의 주제적·미적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 II. 平淡과 閑適을 이루는 요소

### 1. 언어와 문장의 운용

글을 쓰는 비결에 대해 周作人은 한 마디로 “단순함(簡單)”이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文潞公이 한나절을 생각한 끝에 竹園의 題榜을 “綠筠滿碧” 따위가 아닌 “竹軒”이라 지은 것을 인용하며, 本色이 표현되기 어려운 까닭에 대해 “본색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본래의 질료와 형색에 기반해야 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수식에 기대고 싶어 한다. 우선 덧바른 脂粉을 씻어내야만 본색이 드러날 수 있다”<sup>5)</sup>고 말한다. 실제로 周作人 산

문문체의 平淡한 매력은 이 단순함이 지닌 평범함과 견실함에서 기인한다. 다음은 五四新문학의 戰士에서 현대 小品散文 가로의 재탄생을 알리는 周作人の 산문집 《雨天的書》 序文 전편이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는 해다. 때가 겨울이라 쏟아진다고 하기는 무리이고 다만 거미줄처럼 한 가닥 한 가닥 흩뿌린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빗방울이 가늘어 바라봐도 보이지 않고, 하늘빛은 유난히 어두워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이럴 때면 종종 공상에 잠긴다. 강촌의 작은 집 유리창에 기대 백탄 화로에 불을 지피고 淸茶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다면 얼마나 유쾌할까! 그런데 이런 공상은 당연히 실현될 희망이 없다. 다시 하늘을 보니 하늘빛이 더욱 어둡게 느껴진다. 진지한 일이라도 하고 싶지만 마음이 산란하여 김빠진 술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 간신히 글을 한두 줄 써 봐도 별 감흥이 없으니 부질없이 비 오는 날의 답답한 시간을 때우고 있을 뿐이다.

겨울비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거나 씨락눈이 되어 흩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맑은 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비가 올 수 있다. 게다가 어둡고 깊은 시간이 더 길어진다면 나의 비 오는 날의 수필을 계속 쓸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을 것이다.

1923년 11월 5일 북경에서

今年冬天特別的多雨. 因爲是冬天了, 究竟不好意思傾盆的下, 只是蜘蛛絲似的一縷縷的灑下來. 雨雖然細得望去都看不見, 天色却非常陰沈, 使人十分氣悶. 在這樣的時候, 常引起一種空想, 覺得如在江村小屋里, 靠琉璃窓, 烘着白炭火鉢, 喝淸茶, 同友人談閑話, 那是頗愉快的事. 不過這些空想當然沒有實現的希望, 再看天色, 也就愈覺得陰沈, 想要做点正經的工作, 心裏散漫, 好像是出了氣的燒酒, 一点味道都沒有, 只好隨便寫一兩行, 并無別的意思, 聊以代付這雨天的氣悶光陰罷了.

冬雨是不常有的, 日後不晴也將變成雪霰了. 但是在晴朗的時候, 人們的心里也會有雨天, 而且陰沈的期間或者會更長久些, 因此我這雨天的隨筆也就常有續寫的機會了.

一九二三年十一月五日, 在北京<sup>6)</sup>

5) 周作人: <本色> 1935,12 《風雨談》

이 글은 의심의 여지없이 공들여 정련된 서면어이다. 그런데 이 글을 미시적으로 언어운용, 특히 어휘사용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우선 문장 대부분이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졌고, 수사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부사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운용된 어휘들은 관념적인 인식명사나 추상명사 등 의미의 무게를 추구하는 어휘를 찾아보기 어렵고, 지극히 평범하고 통상적인 일상 언어로써 마치 일상의 구두어를 자연스럽게 옮겨놓은 듯한 평온한 인상을 준다.

문장의 단순함과 구조의 단순함은 더욱 두드러진다. 하나의 구절에 몇 개의 단어 또는 몇 개의 구절이 걸쳐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똑같은 문장구조나 단어의 반복으로 인위적인 리듬감과 운율감을 조성하는 곳도 전혀 없다. 전문에는 모두 31개의 쉼표가 쓰이고 있는데, 대부분 10자 이하의 짧은 구절이고, 11자 이상의 구절이 8곳(그중 7구절이 15자 이하, 16자 이상은 1곳), 부사어와 한정어가 쓰인 곳은 단 두 곳 ‘只是蜘蛛絲似的一縷縷的灑下來’, ‘好像是出了氣的燒酒에 불과하다. 복문이 몇 군데 보이지만, ‘一…就…’, ‘只有…才…’, ‘盡管…還是…’ 등 긴밀한 연관을 나타내는 형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而且의 단독 사용 등)를 운용함으로써 산만한 듯 하면서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周作人の 서정적 散文小品들은 위에 열거한 특성들을 대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그의 小品散文은 단어와 문장의 사용에서 자연스럽게 원숙한 단순미를 보여준다. 사용된 단어는 소박한 일상 언어에 가깝고, 수사적 장식이 거의 없으며, 논리적 지적인 사고의 전개로 상대를 압도하는 감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의 산문언어의 가장 큰 힘은 본색이 드러나는 자연스런 언어의 견실함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설명방식은 결국 표면적인 언어사용을 대상으로 한 어법적

6) 周作人: <雨天的書, 序> 1923, 11 《周作人全集》

문체해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만으론 周作人식 平淡·閑適의 문체를 형성하는 요인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거론된 언어운용방식은 오히려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덜 세련된 문체를 낳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선적인 조야함은 平淡·閑適과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周作人 小品散文이 平淡·閑適한 문체적 특성을 지니는 데에는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용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平淡하게 만드는 독특한 서술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 2. 平淡·閑適의 서술방식

우선 周作人식 주제처리방식, 그리고 감정의 표현방식이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고 있다. 周作人은 인생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론을 펼치고자 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아끼며, 그 주변을 맴돈다. 그는 묘사대상에도 밀착되지 않는다. 대신 일정한 거리두기를 통해 대상과 자신 간의 미묘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공간 속에서 周作人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상대는 독자(일반 小品散文)일 수도 있고, 벗 또는 작가자신(서간체 산문)일 수도 있고, 책 속에서 만난 故人(소위 文抄公體 筆記體散文)일 수도 있다. 대화의 내용은 상당한 지식과 학술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상식”과 “人情과 物理”<sup>7)</sup>에 관한 것으로, ‘사람’ 자체에 대한 周作人의 일관된 관심을 표현한다. 이 때 화자는 결코 설교자나 강연자의 태도를 지니지 않는다. 마치 친근한 벗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온화하고 친근한 대화 가운데, 원래 화자의 ‘火氣’와 ‘조급’ ‘초조’한 감정은 점차 淡化되고, 관조된다. 중국의 한 연구자가 “周作人 平淡의 주요한 특색은 平淡化”<sup>8)</sup>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周作人 小品散文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故鄉的野菜>를 살펴보자.

7) 周作人: <中年>, 1930, 3 《看雲集》, 《周作人全集》, 2》 190쪽

8) 李旭: <周作人散文‘平淡’風格的文體學分析>, 《廣東社會科學》 1997, 4

내 고향은 한 군데가 아니다. 내가 지냈던 곳은 모두 다 고향이다. 내게 고향은 무슨 특별한 정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기서 낚시질하고 놀며, 아침저녁으로 마주했던 까닭에 서로 알게 된 곳이다. …(중략) … 며칠 전 西單시장에 찬을 사러 갔던 내 처가 돌아와 하는 말이 거기서 냉이를 팔고 있더라. 그 말에 나는 불현듯 浙東의 일이 생각났다. 냉이는 봄이면 浙東 사람들이 늘 먹는 야채이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고 성내에서도 뒤뜰에 텃밭이 있는 집이면 늘 캐어먹었다. 여인네와 아이들이 칼과 바구니를 들고 들에 앉아 냉이를 캐는 것은 정취 있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我的故鄉不止一個，凡我住過的地方都是故鄉。故鄉對於我並沒有什麼特別的情分，只因鈞于斯游于斯的關係，朝夕會面，遂成相識。… 日前我的妻往西單市場買菜回來，說起有薺菜在那里賣着，我便想起浙東的事來。薺菜是浙東人春天常吃的野菜，鄉間不必說，就是城內只要有後園的人家都可以隨時采食，婦女小兒各拿一把剪刀一只‘苗籃’，蹲在地上搜尋，是一種有趣味的遊戲的工作。<sup>9)</sup>

이 글은 시작부터 “내게 고향은 무슨 특별한 정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마주했던 까닭에” 자연스레 형성된 교감이라고 말한다. 물처럼 담담하게 서술되는 첫 구절은 일반적인 고향에 대한 향수, 즉 동경과 몰입의 열렬한 감성에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고향에 대한 화자의 회상도 대대로 전해지는 역사적 문물유적이거나 조상의 위대한 업적 같은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의 자그마한 사건에서 비롯되는 자유로운 연상, 바로 시장을 다녀온 처의 언급에 의해 비로소 떠오르는 고향의 일상의 모습, 가장 평범한 고향의 나물과 나물 캐는 여인과 아이들이다. 화자의 회상은 냉이에서 냉이꽃으로, 다시 浙東의 노란 꽃 밀기울과 일본의 야채 떡, 성묘시 먹었던 자운영으로 이어지며 산만한 듯 잔잔하다. 그 속에는 자홍빛의 자운영이 “비단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화려한 색채감도 보이지만, 화자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풀(자운영) 따 민들레는 어린 시절부터 늘 보던 것들이다. 아마도 여인 가운데 자운영을 꺾지 않았던 이는 없을 것”이라는 구절에 담겨 있다. 즉 작가는 우리의

9) 周作人: <故鄉的野菜> 1924, 2 <<雨天的書>>

일상생활, 평범하고 자연스런 생활에서 발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故郷の野菜>가 지닌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지만, 그 본의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작가는 다시 “가난한 사람은 (성묘 시에) 비록 북을 치지 못했지만, 뱃머리 창 아래에는 늘 자운영과 진달래 꽃다발이 놓여있었다”고 글을 맺어준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작가의 본의와 글의 주제를 굳이 알고자 할 필요가 없다.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담담한 따스함,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平淡 閑適의 풍격을 조성하는 周作人의 또 다른 서술방식은 언어운용면에서 일종의 음각의 표현방식을 만든다는 점이다. 周作人은 자신의 직접 발언을 최대한 줄이고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경물 상황 자체로부터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이성과 논리로써 자신의 말을 겉으로 분명하게 내뱉는 양각의 표현방식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언어의 막 뒤에 숨기고 깃들이며 여백과 여운으로써 발언하는 일종의 음각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때로 이 음각의 표현방식은 양각의 표현방식 보다 더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양각의 표현방식은 주로 논리에 의해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과도한 자기노출과 각박함으로 흐르기 쉽고, 때문에 그것은 순간의 해방감과 쾌감을 줄 수 있지만, 독자에게 유장한 여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음각의 표현방식은 여운의 울림 속에서 이미지를 확장하면서, 깊고 담담한 풍격을 만들어낸다. 周作人의 <山中雜信> 중 세 번째 서신을 살펴보자.

요즈음 반야당의 분위기는 한가하고 여유로워 차분히 조금한 마음을 풀도록 하여 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는 있어도 말로 전하기 어렵군요. ... 이곳 뜰에는 한 무리의 닭이 있습니다. 모두 대여섯 마리 되는데, 그 중에는 암놈도 있고 수놈도 있습니다. ... 낮 동안 닭들은 자춧빛 등나무꽃 아래 숨어 있다가, 밤에는 입구가 좁고 배가 부른 광주리 안에 넣어집니다. ... 밤 7, 8시경이면 승려들도 북을 치고 각자 돌아가 쉽니다. 그런데 광주리 속의 닭들이 이상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방 안에서 스님들이 ‘쉬이, 쉬이’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상

황은 한참 계속되더니 광주리 안과 선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더 이상의 소동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족제비가 닭을 훔치러 왔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그 입이 작고 배가 부른 광주리에는 족제비가 들어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광주리 안으로 떨어져서 들어갔다 해도 다시 나올 수가 없을 터이니깐요. 아마도 족제비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살피러 왔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광주리 위에 덮개를 덮어둔다면 - 원래 이미 말했던 것처럼 덮개가 없어도 무척 안전하지만 - 족제비가 살피러 오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스님들은 영원히 덮개를 덮지 않을 것이고, 족제비도 끝없이 염탐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광주리와 선방 안에서는 사흘이 멀다하고 족제비 쫓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般若堂裏의空氣, 近來很是長閑逸豫, 令人平矜釋躁. 這個情形可以意會, 不易言傳. .... 我們院子裏, 有一群鷄, 共五六只, 其中公的也有, 母的也有. ... 他們白天裏躲在紫藤花底下, 晚間被盛入一只小口大腹, .... 夜裏酉戌之交, 和尚們雷鼓既罷, 各去休息, 簍裏的鷄便怪聲怪氣的叫起來, 於是禪房裏和尚們的‘唵唵’之聲, 相繼而作. 這樣以後, 簍裏與禪房裏便復寂然. 直到天明, 更沒有什麼驚動. 問是什麼事呢? 答說有黃鼠狼來咬鷄. 其實這小口大腹的簍子裏, 黃鼠狼是不會進去的, 倘若掉了下去, 他就再逃也不出來了. 大約他總是未能忘情, 所以常來窺探, 不過聊以快意罷了. 倘若簍子上加上一個蓋, - 雖然如上文所說, 即使無蓋, 本來也就安全 - 也便可以省得他的窺探. 但和尚們永遠不加蓋, 黃鼠狼也便永遠要來窺探, 以致三日兩頭的引起夜中簍裏與禪房裏的驅逐.<sup>10)</sup>

‘한가하고 여유로움(長閑逸豫)’을 설명하고자 하는 周作人は 그것이 ‘마음으로 깨달을 수는 있지만’ ‘말로 전하기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에 그는 그 상태를 논리적인 인식언어로 표현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직접적인 감정과 충동을 감춘 채 눈에 보이는 경물과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로써 대신한다. 고요한 야밤에 벌어지는 족제비와 닭의 소동은 어느덧 족제비와 세속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스님의 미묘한 관계로 겹쳐지고, 세속의 정을 잊지 못하는 스님의 존재로 인해 산사의 長閑逸豫는 더욱 깊

10) 周作人: <山中雜信, 三> 1921,6,29 <周作人全集, 2> 351 쪽

어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오로지 묘사 뒤편에 숨어있을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숨겨진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음각의 서술 방식이다. 그것은 여백과 여운 속에서, 혹은 말해진 것과 숨겨진 것의 사이에서, 비로소 형체를 완성시키고 의미를 완성시키며 유유한 閑適의 정취를 증폭시킨다.

平淡閑適의 풍격을 만드는 周作人의 세 번째 서술방식은 우울과 적막을 해학의 언어로, 분노를 반어와 유머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周作人의 산문 가운데 순수하게 平淡·閑適의 경지를 성취한 작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周作人 자신이 누차 언급한 것처럼 그에게는 ‘流氓魂’과 ‘紳士魂’, ‘叛徒’와 ‘隱士’, ‘답’과 ‘거리’의 정서가 혼재되어 있고, 그의 대부분 작품에는 ‘正經’과 ‘閑適’이 동시에 드러난다. 단 심각한 ‘正經’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閑適’한 필조를 유지하는 것이 周作人 산문의 특징인데, 이러한 閑適한 필조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해학과 반어 유머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쓰고, 다른 이의 말을 듣고, 다른 이의 글을 읽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잠시 스스로를 위안하는 좋은 꿈이다. 자신이 깨어났을 때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고, 꿈인줄 알면서도 꿈 속에 더 머물고픈 그런 좋은 꿈 말이다. ... 우리가 문 밖 풀밭에서 공중제비돌기를 할 때에 건너 편 높은 집에서 미인이 바라보고 있을 거라 상상하면(그녀가 꼭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절로 신이 날 터이니 이것도 방법이고, 그녀가 바라볼 리 없다면 집어치고 풀밭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면 그뿐이니 이것 또한 방법이다. 나는 공중제비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비록 그다지 잘 하는 편은 아니어도, 단 잘하지 못할 뿐이지 나쁜 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런데 자신의 自評은 항상 믿지 못할 것인가 보다. 많은 지식계급의 도학자들의 눈에는 내 공중회전이 부도덕하다 여겨진다., 내 자세가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내 견해가 치안을 해치리라는 것이다. ... 세 장의 종이가 이미 가득 찼다. 이 글도 이제 끝내야 한다. 내가 종이를 세 장이나 들여 침묵을 제창하는 것은 이것이 현재 중국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 때로는 다

른 방법을 취해도 된다. 기분 좋을 때 약간의 연극을 하며 ‘시름을 잊는’ 일 말이다.

我們說話作文, 聽別人的話, 讀別人的文, 以爲互相理解了, 這是一個聊以自娛的如意的好夢, 好到連自己覺到了的時候也還不肯立即承認, 知道是夢了却還想在夢境中多流連一刻. …我們在門外草地上翻幾個筋鬪, 想像那對面高樓上的美人看着,(明知她未必看見,) 很是高興, 是一種辦法; 反正她不會看見, 不翻筋鬪了, 且臥在草地上看雲罷, 這也是一種辦法. …我是喜翻筋鬪的人, 雖然自己知道翻得不好. 但這也只是不巧妙罷了, 未必有什麼害處, 足爲世道人心之憂. 不過自己的評語總是不大靠得住的, 所以在許多知識階級的道學家看來, 我的筋鬪都翻得有點不道德, 不是這種姿勢足以壞亂風俗, 便是這個主意近于妨害治安. …三張紙已將寫滿, 這篇文應該結束了. 我費了三張紙來提唱沈默, 因爲這是對於現在中國的適當辦法. 一然而這原來只是兩種辦法之一, 有時也可以擇取另一辦法: 高興的時候弄點小把戲, 籍資排遣.’<sup>11)</sup>

종이 장수를 세어가며 침묵을 제창하는 것도 그 자체로 해학이고, 자신의 글쓰기를 공중제비돌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주기를 바라는 심정에 비유한 것도 해학이자 유머이다. 그런데 그 해학과 유머가 도학자들에 대한 풍자를 넘어서면 어느덧 閑適한 필조 속에 침중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깃든다. 周作人 平淡閑適 문체의 특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閑適과 해학은 우울함을 근거로 하여 역사적인 깊이와 무거운 감정적 역량을 지니고, 우울한 정조는 閑適과 해학으로써 표현되어 灑脫 從容의 기상과 맑은 이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sup>12)</sup>이다.

그러나 周作人の 이러한 문체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항쟁과 분격의 언어, 직접적인 호소와 외침, 장식과 수사의 언어에 익숙했던 동시대인에게 周作人식 문체는 오직 ‘平淡’과 ‘閑適’일 따름<sup>13)</sup>이었다.

11) 周作人: <沈默> 1924, 7 《雨天的書》, 《周作人全集, 2》347 쪽

12) 錢理群: 《周作人論》87~88 쪽

13) 예를 들어 朱光潛은 《雨天的書》의 작품을 ‘清淡’으로 개괄하면서 “간뜩 모양을 낸 新詩 혹은 형용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소설을 읽은 이후 우리들이 周 선생과 같이 앉아 한모금씩 淸茶를 마시고 앞마당의 얼룩개구리가 물에서 노는 걸 보면서 그가 말해주는 ‘고향의 야채’, ‘北京의 茶食’ 등의 이야기를 듣는

심지어 명실상부하게 “지극히 신랄하고 팔을 짚어 피를 보는 아픔이 있는”<sup>14)</sup> 한 편의 격문, <碰傷> 같은 작품마저도 그 반어적이고 함축적인 표현 때문에 내용을 오해한 독자들이 비난의 편지를 보냈던 사실<sup>15)</sup>이 당시 독자들이 상황을 대변해준다. 周作人의 고독과 적막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은 周作人식 平淡閑適 문체의 배후, 苦味의 문체를 환기시킨다.

### 3. 平淡·閑適의 배후: 周作人 산문의 苦味에 관하여

平淡·閑適은 결국 문체이자 풍격이다. 풍격을 간단히 미적 특성이라 말한다면, 周作人 산문이 平淡·閑適하다는 것은 그의 산문에는 平淡·閑適한 미를 느끼게 하는 모종의 분위기가 두드러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周作人은 자신의 산문이 平淡·閑適하다는 평가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심정이 “조급”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글도 결코 平淡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나는 글을 쓸 때마다 平淡自然의 경지를 지극히 흠모하였다. 그러나 고대 혹은 외국의 작품에나 그러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었고, 내 자신은 꿈도 꿀 수 없었다. … 나 같이 조급한 사람이 이 시대의 중국에 태어나서, 고요하고 침착하게 和平平淡한 문장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sup>16)</sup>

나의 글이 꼭 閑適한 것 같아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오직 한두명의

다면 진정 크나큰 해탈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周作人의 小品산문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낸 것이지만, 그의 작품을 오직 ‘清淡’으로만 개괄한 것은 분명 오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4) 周作人: <苦茶:知堂回想錄, 135> 315 쪽

15) 郁達夫: <中國新文學大系, 散文二集, 導言> 14쪽 참고

16) 周作人: <‘雨天的書’自序二> 1923, 11 《周作人全集, 2》 266~267 쪽 “我近來作文極慕平淡自然的境地, 但是看古代或外國文學才有此種作品, 自己還夢想不到有能做的一天, …像我這樣褊急的脾氣的人, 生在中國這個時代, 實在難望能夠從容鎮靜地做出平和冲淡的文章來.

오랜 벗만 그 중의 苦味를 아는 것 같다. 얼마전 廢名이 언급했었고, 요즘 한 일본 친구가 내 글에 대해 ‘읽어보면 간혹 고민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7)</sup>

周作人이 자신의 산문이 平淡 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는 까닭은 많은 평자들이 언어의 표면적인 인상만으로 平淡을 논하며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고민’, 즉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항의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술적으로 平淡閑適한 경지를 추구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직접적인 현실투쟁에서 이탈해나가는 것을 연결시켜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1920~30년대 좌익평론계에 대한 반발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작품을 보는 시각과 차원에서 작가와 평자 사이에 어긋남이 있는 것인데, 周作人の 작품활동의 궁극적인 의의가 ‘벗을 찾는 행위’, 즉 누군가에게 자신이 이해받고 싶었던 외로움의 표출행위였다<sup>18)</sup>면 周作人の 이러한 반론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周作人の 小品散文이 平淡·閑適한 풍격을 지니고 있고, 그의 이러한 미적 성취로 말미암아 이후 현대문학계에 閑適산문의 풍조를 열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단지 당시의 많은 평자들이 周作人 산문에 배어있는 苦味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 그 까닭은 일부 좌익평론가들이 자유주의자 周作人の 고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외에도, 周作人の 산문에는 고민의 흔적이 깊숙이 내재화되어 있어 분위기로써 감지될 뿐, 구체적인 언어에서 그 흔적을 찾기란 무척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고민을 내재화하는 방식이 문제일 터

17) 周作人: <藥味集 序> 1942, 1 《周作人全集, 4》 273쪽 “拙文貌似閑適, 往往誤人, 唯一二舊友知其苦味, 廢名昔日文中曾約略說及, 近見日本友人議論拙文, 謂有時讀之頗感苦悶, 鄙人甚感其言.”

18) 周作人은 <自己的園地, 舊序>(1923, 7)에서 “나는 이전의 장밋빛 꿈이 모두 虛幻이었음을 알지만 아직도 평범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벗을 찾는다. ... 나는 외롭기 때문에 문학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책 읽고 글을 쓰면서..”라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風雨談 小引>, <結緣豆> 등 여러 편에서 유사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인데, 周作人식 平淡·閑適 문체의 관건도 바로 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앞에 든 <雨天的書, 序文>은 《雨天的書》의 전체 작품에 대한 배경 구상 분위기 등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작가의 고백이자 자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첫 구절은 ‘今年冬天特別的多雨’로 시작된다. 이미 텍스트로 고정된 문장이 非文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면, 이 표현은 ‘今年冬天雨特別多’라는 술어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명사화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비가 많다’는 서술적 차원이 아닌 ‘많은 비(多雨)’가 화자에 의해 의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식적 차원의 표현이다. 즉 이 문장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화자(즉 자아)의 존재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구조이다. 그런데 막상 화자는 굳이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고 ‘비 오는 날(雨天)’의 느낌과 연상 속에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용해시킨다. 화자의 인식과 감각이 돌연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화자의 공상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이다. 처음부터 ‘많은 비(多雨)’를 의식하는 화자의 심리상태는 결국 ‘비오는 날(雨天)’ ‘차를 마시며(喝清茶)’ ‘벗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同友人談閑話)’이 무척 ‘유쾌할 것(愉快的事)’이라 동경하면서, 그것이 ‘실현될 희망이 없음(沒有實現的希望)’을 깨닫는 어찌할 수 없는 우울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오는 날의 답답함을 때우기’ 위해 행하는 글쓰기는 결국 작가가 이야기를 나눌 벗을 찾는 표시이다. 즉 작가에게 글쓰기란 처음부터 외로움을 의식하는 자아가 타인과의 교신을 갈망하며 말을 거는 행위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雨天的書》의 작품 전체에는 “꿈인줄 알면서도 그 속에 잠시라도 더 머물고 싶고”, “깨어났을 때조차 그것이 꿈이었음을 차마 인정하지 못하느”, “상호 이해”<sup>19)</sup>에 대한 절망적 회구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타인과의 교신이 “실현될 희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행위에 苦味의 절정이 있다. 결국 周作人の 小品 산문에 내재된 특유의 苦味란 작가가 平淡·閑適한 예술표현방식을 극력 추구하면서 우울과 적막을

19) 周作人: <沈黙> 1924, 7 《雨天的書》

閑適함으로, 분노를 해학으로, 침예함을 완곡함으로 바꾼 결과 감지되는 내용과 표현 사이의 일종의 정서적 미학적 낙차라고 할 수 있다. 周作人 閑適小品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烏篷船>에도 이러한 苦味는 그의 小品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 子榮에게

편지를 받고서 당신이 우리 고향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고향에 대해)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주 재미있는 물건, 바로 배입니다. 당신은 고향에서 보통 인력거 전차 또는 자동차를 탔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내나 산에서 가마를 이용하는 것을 빼고 보통 걸기를 대신하는 것은 모두 배입니다. ... 야항선을 타고 西陵에 가는 것도 특별한 정취가 있지만, 아무래도 당신에게 불편할 것 같으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 작은 배는 그야말로 일엽편주입니다. 당신이 배에 앉으면 배 천정은 당신머리에서 겨우 두 세치 떨어져 있고, 당신이 두 손을 뱃전에 좌우로 걸쳐놓으면 손이 밖으로 나올 정도이니까요. 이런 배에 있으면 마치 물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 발이랑에 가까이 갈 때면 흠이 코에 닿을 지경입니다. 게다가 풍랑이라도 만났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 위험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이 또한 水郷의 특색이라 할 수 있으니 나름대로 운치 있는 일입니다. ... 당신이 배를 탄다면 전차처럼 금방 도착하길 기대해선 안됩니다. ... 당신은 배에 앉아 유람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사방의 경물, 곳곳의 산, 강기슭의 오구나무, 강변의 붉은 여귀와 흰 개구리풀밭, 漁舍, 각양각색의 다리를 바라보고, 피곤하면 배에 누워 수필을 꺼내 읽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 暮色蒼然한 시간이면 성으로 들어가 벽려가 걸린 동문에 오르는 것도 무척 운치 있는 일입니다. ... 밤이면 배에 누워 물소리, 노 젓는 소리, 왕래하는 배들끼리 부르는 소리, 마을의 개 짖는 소리, 닭 울음 소리를 듣는 것도 참 재미있지요. 배 한척을 세내서 시골 묘회를 보러가면 중국 구회의 진취미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아쉬운 점은 유신 이래 이런 연극과 迎會가 모두 금지되고, 머리 나쁜 중산계층들은 회관 밖에 별도로 ‘上海式’극장을 건설하여 上海의 우스꽝스런 연극을 보라고 표를 파는 일입니다. 이런 곳엔 부디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내 고향에 가면 아마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을 테지요. 저 역시 수업 때문에 당신과 함께 밤배를 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니 정말이지 미안하고 슬픈 일입니다. …

豈明 民國 15년 11월 18일 밤 北京에서

子榮君

接到手書, 知道你要到我的故鄉去 … 我要說的是一種很有趣的東西, 這便是船. 你在家鄉平常總坐人力車 電車 或是汽車, 但在我的故鄉那里這些都沒有. 除了在城內或山上是用轎子以外, 普通代步都是用船. … 坐夜航船到西陵去也有特別的風趣, 但是你總不便坐, 所以我就可以不說了. … 小船則真是一葉扁舟, 你坐在船底席上, 篷頂離你的頭有兩三寸, 你的兩手可以攔在左右的舷上, 還把手都露出在外邊. 在這種船里彷彿是在水面上坐, 靠近田岸去時泥土便和你的眼鼻接近, 而且遇着風浪, 或是坐得少不小心, 就會船底朝天, 發生危險, 但是也頗有趣味, 是水鄉的一種特色. … 你如坐船出去, 可是不能像坐電車的那樣性急, 立刻盼望走到. … 你坐在船上, 應該是游山的態度, 看看四周物色, 隨處可見的山, 岸旁的烏柏, 河邊的紅蓼和白蘋, 漁舍, 各式各樣的橋, 困倦的時候睡在艙中拿出隨筆來看, 或者沖一碗清茶喝喝. … 到暮色蒼然的時候進城上都掛着薛荔的東門來, 都是頗有趣味的事. … 夜間睡在艙中, 聽水聲櫓聲 來往船只的招呼聲, 以及鄉間的犬吠鷄鳴, 也都很有意思. 雇一只船到鄉下去看廟戲可以了解中國舊劇的真趣味. … 只可惜講維新以來這些演劇與迎會都已禁止, 中產階級的低能人別在‘布業會館’等處建起‘海式’的戲場來, 請大家買票看上海的貓兒戲. 這些地方你千萬不要去. — 你到我那故鄉, 恐怕沒有一個人認得, 我又因為在教書不能陪你去玩, 坐夜船, 談閒天, 實在抱歉而且惆悵 …

豈明 十五年十一月十八日夜, 在北京<sup>20)</sup>

<烏篷船>은 고독했기에 상상 속의 벗을 찾아 글을 쓰는 周作人 글쓰기의 본령을 보여준다. 周作人の 小品산문에 편지체가 유난히 많은 것도 그의 글쓰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周作人에게는 편지를 받아줄만한 知己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기껏해야 川島·錢玄同·孫伏園 등 두세 명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결국 周作人 은 자신에게 편지를 쓴다. 子榮과 豈明은 모두 周作人の 필명이다. 따라서 이 글은 자아로부터 분열된 또 하나의 자아를 향한 영혼의 대화이다.

20) 周作人: <烏篷船>, 1926, 11 《澤瀉集》. 《周作人全集, 1》 147~149쪽

수신인 子榮은 “보통 인력거 전차 혹은 자동차를 타”고 “야항선을 타고 西陵으로 가는 것”이 “어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 전통생활의 정취에서 이미 멀어지기 시작한 현실 속의 자아이다. 이에 반해 浬明은 현실의 자아에 내심으로부터 완강하게 저항하고 그를 객관화 하려는 또 다른 자아, 최소한 周作人이 보기에 더욱 진실하고 더욱 가치 있는 자아이다. 그는 흥미진진하게 고향의 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흰돛 배(白篷船), 검은돛 배(烏篷船), 큰 배, 작은 배, 烏篷船을 설명할 때는 단지 三明瓦를 설명하기 위해 전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편쪽을 할애하기도 하고, 작은 배를 설명할 때는 높이·폭·운행시의 느낌·사고의 위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세밀하고 펴진한 묘사 속에 반복 사용되는 어휘가 ‘有趣’ ‘風趣’ ‘趣味’이다. 이는 어휘의 빈곤 때문이 아니다. 화자의 본뜻이 여러 배의 묘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품고 있는 취미, 정감 운치, 생활방식, 인생태도, 즉 전통문화의 내함에 있었기 때문이다.

‘黃昏’ ‘夜間’ ‘暮色蒼然’ 등 모종의 역사적 적막감을 느끼는 어휘 뒤에는 ‘山’ ‘河’ ‘烏桕’ ‘紅蓼’ ‘白蘋’ ‘漁舍’ ‘橋’ 등 고요하고 영원한 자연의 경물이 나오고, ‘물소리’ ‘노 젓는 소리’ ‘배들끼리 부르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닭 울음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는 원시적 전통과 자연인성의 부름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작자는 잃어버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불러내어 근대 문명 속에서 소외된 자아를 회복하고 분열된 자아를 재차 통합해내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浬明이 子榮에게 고향에서 배를 타는 ‘眞趣味’를 맛보라고 간곡히 권하는 참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維新을 논하며 근대화를 지향한 이래 전통문화의 고요함과 화해로움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자연과 직접 교류하던 자유로운 인격도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는 근대적 대도시의 저속한 상업문화가 들어섰다. 이는 줄곧 인격의 자유와 개인 의지의 존엄을 주장하며 근대성을 추구했던 周作人으로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통문화의 부름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꿈’일 따름인 것이다. 이제 담담하고 閑適한 필조로 쓰여진 그의 <烏篷船>은 어느 순간 근대인의 생존상

황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적막감을 띤다. 담담한 희열 속에 섞인 적막한 苦味, 平淡 속에 스민 비애, 이것이 周作人 산문小品의 미적 특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 Ⅲ. 맺는 글

陳思和는 周作人에 대해 五四의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진정한 자유주의적 지식인으로서의 가치 전환에 성공한 자<sup>21)</sup>라 평가한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성향의 지식인이었다면, 周作人은 그러한 길을 거부한 五四지식인 가운데 기적적으로 새로운 자신의 영역 — 현대산문 가운데 美文, 즉 小品文 —에서 새로운 가치표준 수립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周作人이 점차 산문小品 작가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실상 한 작가가 자신의 문체<sup>22)</sup>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민국 10년 이전 나는 무척이나 유치했고 이상적, 낙관적인 말을 꽤 많이 했다. 이후 조금씩 깨닫는데 적잖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sup>23)</sup>는 고백에서부터 이제 “몽상가와 전도자의 기미가 조금씩 멀어지고” “예술과 생활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sup>24)</sup>는 진술은 곧바로 한 시대의 散文小品작가 周作人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하는 선언이었다. 즉 五四시기 문명비판의 낭만적 전사 周作人이 생활방식, 인생철학, 감성과 정취 등에서부터 보다 이지적이고 온화하며 平淡閑適한 小品文의 탄생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周作人 입장에서 말하자면 小品文은 周作人이 새롭게 찾은 세계에 대한 발언방식, 존재방식<sup>25)</sup>이라

21) 陳思和: <關於周作人的傳記>,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1년 3기

22) 여기서 문체라 할 때, 그것은 본 논문에서 다룬 다른 ‘문체’라는 표현과 달리 일종의 장르문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장르문체란 “텍스트가 장르 특유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초로 형성된 텍스트의 특징적인 문체”(B 조빈스카 《문체론》 122쪽)라 할 수 있다.

23) 周作人: <談虎集, 後記>, 1927, 11 《周作人全集, 1》 432쪽

24) 周作人: <藝術與生活, 自序>, 1926, 11 《周作人全集, 3》 560쪽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周作人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문화와 감성으로 누적된 지식인의 가치를 일시에 부정하고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치 중심을 세우는 과정은 고독한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혁명의 시대에 그것은 쉽게 정치적 낙오로 받아들여졌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진정한 벗은 거의 없었다. 周作人 小品文이 끊임없이 타인과의 교신을 갈망하며 대화를 시도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무력함을 곱씹는 과정에 놓여있고, 그 무력함과 절망감을 의식적으로 平淡·閑適한 언어와 서술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특유의 苦味가 흘러나오고 있음은 이미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周作人 산문小品의 문체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목적은 문체특성을 이루는 언어 및 문장운용 방식, 서술방식 등을 최대한 외재화함으로써 平淡·閑適이라는 어느 정도 주관적 문체감각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문체 통계학<sup>25)</sup>에 의존하여 계량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문체를 작가의 세계관 및 정신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 결과 의미의 무게를 덜어낸 단순 간결한 언어와 문장사용으로 인한 평범의 미학, 작가의 인격을 녹여낸 특유의 서술방식으로 인한 閑適의 미학, 平淡과 閑適의 바탕 속에 스민 우환과 고민의 내재 방식 등에 대해 초보적인 설명을 시도할 수 있었다.

중국현대문학사에서 周作人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는 그의 끊임 없는 새로운 문체탐험과 실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문학의 최대성과로 꼽히는 현대小品文의 장르문체를 확립한 것은 물론이고, 서간체 산문, 혹은 비난과 찬사가 엇갈리는 소위 文抄公體 산문 등 그의 다양한 시도는 근대적 문학체제와 문체의 수립에 기여했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체제의 문체특성에 대해 일일이 분석을 하지 못했다. 특히 외

25) 黃開發: <知堂小品散文의 文體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1998, 4기

26) 특정한 텍스트 종류에 대해 작가들의 문장에 쓰인 단어 수의 평균치를 밝혀 내는 것을 위주로 하는 문체론의 한 방법을 가리킨다.

형상 별개의 모습을 띄고 있는 그의 小品文과 수많은 雜文, 서간체 산문과 文抄公體 산문 사이의 내재적 연관을 살펴보는 것은 작가 周作人의 정신세계와 미학의 세계를 살펴보는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參考資料 >

- 周作人: 《周作人全集》1~5권, 南燈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2  
周作人: 《周作人散文》1~4권, 中國廣播電視出版社, 1992  
胡適: 《胡適文存》 전4권, 黃山書社, 1996  
郁達夫: <中國新文學大系, 散文二集, 導言>, 上海良友印刷工司, 1936  
周作人: <苦茶: 知堂回想錄>, 敦煌文藝出版社, 1995  
周荷初: 《晚明小品與現代散文》, 湖南人民出版社, 2004  
孫郁 黃喬生 編: 《作人研究述評》, 河南大學出版社, 2004  
陶明志編: 《周作人論》, 北新書局, 1936  
程光燾 編: 《周作人評說80年》, 中國華僑出版社, 2000  
陳思和: <關於周作人的傳記>,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1  
黃開發: <知堂小品散文的文體研究>,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1998, 4기  
李旭: <周作人散文‘平淡’風格的文體學分析>, 《廣東社會科學》 1997, 4  
錢理群: <周作人的散文藝術>, 《周作人論》, 上海人民出版社, 1991  
錢理群: <美文的清淡與雜感的溫和>, 《讀周作人》, 天津古籍出版社, 2001  
舒蕪: <兩個鬼的文章-周作人的散文藝術>, 《周作人的是非功過》, 1993  
安文軍: <周作人散文研究述評>, 《中國現代當代文學研究》 2001, 7 期  
홍준형: <五四초기 산문 장르의 정체성과 글쓰기의 존재양상>, 《中語中文學》 제35집, 2004  
B 조빈스키 지음, 이덕호옮김 《문체론》, 한신문화사 1999  
신진: 《문체와 문체연구》, 동아대학출판부, 1998

## 〈中文提要〉

本文是关于周作人散文小品文体构成的一篇实验性论文。其研究目的是把组成小品文体特性的言语和文章的运用方式·叙述方式等加以高度的客观化和外在化，从而对于所谓平淡闲适的、有一定程度的主观性的文体感觉加以逻辑性说明和分析。在这过程中，我采取的态度不是依据文体统计学导致一种被量化的结论，而是把文体当作作家世界观和精神世界的一种表现。总而言之，我究竟注意到的就是周作人他本身。通过这种过程，我作出了如下结论。

第一，使用减轻意味分量的简单简炼的语言和文章来表现出平凡的美学，第二，以渗透作家人格的特有叙述方式来表现出闲适的美学，第三，在平淡闲适情调的背景下表现出周作人散文苦味的美学。

本论文还没阐述对周作人小品文与许多杂文，尺牍体散文，文抄公体散文等的内在关系。这些散文的文体看似在表面上具有很大的差别。不过它们统一于周作人一身上，所以应该说它们和周作人精神世界及美学世界的关系非常紧密。关于这种问题，有待进一步的研究。

주제어: 周作人, 小品文, 文體構成, 言語 및 文章運用, 敘述方式, 苦味